

광주 도시경쟁력 특·광역시 7곳 중 4위

문화적 상호작용·거주 적합성 상위권
경제·연구개발·교통 접근성 최하위권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경쟁력 평가

광주의 도시경쟁력이 특·광역시 7곳 가운데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연구개발·문화적 상호작용·거주 적합성·생태환경·교통 접근성 등 6개 분야 90개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광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거주의 적합성 분야에서는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경제·연구개발 분야는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12일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박사가 정책과제로 진행한 '2018년 광주 도시경쟁력 현황분석·평가 및 특화지표 개발 연구'에 따르면 광주의 도시경쟁력지수는 총점

1800점 중 613점을 얻어 서울(1094점), 대전(751점), 부산(617점)에 이어 4위로 평가됐다. 인천(599점), 울산(583점), 대구(497점) 등이 5-7위였다. 광주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는 5위와 6위였으며, 점차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광주가 가장 선전한 분야는 '문화적 상호 작용' (2위), '거주 적합성' (2위)이었다. 문화적 상호작용 분야에서는 예산 총액 대비 문화예산이 12.2점, 문화기반시설 수 14.7점, 문화예술활동건수 10.0점 등으로 평가돼 순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콘텐츠 산업 매출액 (0.1점), 지정등록문화재수

(0.2점), 국제회의업체수(0.5점) 등으로 매우 낮았다. 거주적합성 분야에서는 살인사건발생건수(14.9점), 평균오피스 임대료(14.8점), 인구밀도(14.0점), 실업률(13.9점), 의료기관병상수(13.8점), 가족관계만족도(13.1점) 등에서 다른 특·광역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진한 분야는 '교통 및 접근성' (7위), '경제' (6위)와 '연구개발' (6위)로 나타났다.

교통 및 접근성에서는 주차장 확보율(16.5점), 대중교통 접근성(14.5점), 1인당 도시지역 면적(12.9점)만 높았을 뿐 도시철도역 밀도(0.9점), 국제선여객운항편수(0.1점), 고속철도교통접근성(3.9점) 등이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제에서는 GRDP(지역내 총생산)와 대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0.1점에 불과했고,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수

(0.2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수(0.5점) 등 1점을 못 넘는 지수가 부지기수였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공공과학기술연구자수(0.1점)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연구자수(0.7점), 과학기술연구개발비총액(0.3점), 특허등록건수 및 영재교육대상자수(0.5점), 국가연구개발비집행액(0.8점) 등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낮았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광주가 갖고 있는 독창성과 비교우위 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문화와 거주적합성에 중점을 두며 도시브랜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조례'에 의해 3년 단위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한눈에'

특성화·대학 등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광주시는 '찾아가는 광주형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광주형일자리 설명회'는 광주형일자리 최초 설계자인 박병규 시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이 강의를 희망하는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동차 관련 학과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12일 "13개 특성화고와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6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광주형 일자의 정확한 이해와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교육하고 광주형 일자 리 자동차공장 취업 준비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 있는 각급 학교,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14일 이용섭 시장의 전국 최초 '노사상생도시' 선언 이후 지역 내 합의를 끌어내 같은달 31일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 리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식 체결을 마무리했다. 현재 투자유치 중간사 선정,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광주시, 양성과정 운영

광주시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과정은 2008년 시작된 이후 5157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5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올해 과정은 4월부터 8월까지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인 콘텐츠테크하이퍼과정, 공예디자인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 지역대학과 연계한 학점인정제 과정 등 콘텐츠 아카데미과정도 연중 병행 운영한다. 과정별로는 콘텐츠테크하이퍼과정 7개,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1개, 콘텐츠 아카데미과정 14개 등 총 20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빈혈검사 받는 영유아

12일 광주 북구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영양플러스 영양평가에 참가한 임신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영양위험요인 기준인 빈혈검사를 받고 있다.

'부지가 없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옥동역 신설 무산

투자비용 대비 효율 적어

광주시가 도시철도 1호선 옥동역 연장설치를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무산됐다. 최근 광산구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돼 12일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100억~150억원이 드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옥동역 설치 방안은 인근 평동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가 자체적으

로 검토하는 사업이다. 기존 1호선 중점인 평동산단에서 옥동차량기지까지 980m 구간에 철도 선로가 깔려 있어 간이역사만 마련하면 1호선을 연장할 수 있다.

2004년 1호선 준공 후 기점인 용산차량기지에 옥동역을 추가로 신설한 전례가 있어 중점인 옥동역을 설치할 경우 인근 산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옥동차량기지 주변에는 분양이 완료된 평동 2차산단(225만4000여㎡)과 광주시가 민관 공동으로 조성 중인 3차산단(117만7000여㎡)이 현재 10.8%의 분양

률을 보이고 있다.

옥동차량기지 인근 거주 주민도 400여 명이 이른다. 시는 옥동역을 신설하면 산단 접근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간이역사부지 확보다.

애초 인근에 광산구가 추진 중인 청소차량 차고지를 검토했으나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대체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노조의 반대도 있어 시는 어렵다고 판

단했다. 또 쓰레기 차고지와 맞닿은 옥동차량기지 안을 역사로 검토했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체 5845㎡ 면적의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 기간이 오는 2030년까지여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간이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인 태양광 설비 임대 부지가 유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산단에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고 옥동역이 설치되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할 상황이다"며 "결국 100여 명이 넘는 투자의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화폐 줄속 추진

공청회 없고 문제점 보완 안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가 줄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경실련 등 광주 일부 시민단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과 앞으로 발행될 지역 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실제 수요자가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데 단순히 매출 5억 미만 점포로 한정된 부분도 아쉽다. 나아가 각종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지역 화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 수단이 첨단화·다양화되는 데 단순히 지역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지역 화폐 발행 방식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3월 중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

배임·횡령 의혹 논란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보수 시민사회단체 활동 규정을 위반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미정(민주·동구2) 시의원은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재임 기간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5년에 걸쳐 149회 1억9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아내로부터 단체가 벌인 돈의 변제금을 모두 아내 계좌로 입금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자신의 별도 계좌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집(민주·남구1) 시의원도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시민생활환

경회의 정관에는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됐는데 대담 급여를 받았다"면서 "이 문제로 김 후보자가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되면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회는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돈을 받은 부분은 잘못했다"면서 "이것은 배임과 횡령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 대가를 법적으로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오는 20일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